

경제성·타당성 겹핥기 심사... 현장실사·사후관리는 '남의 일'

헬세로 짓고... 적자에 허덕
관광문화시설

<4> 허술한 투자 심사

전남지역 각 시군의 대형 투자사업 대다수가 사업 초기부터 적자 신세를 면치 못하면서 전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전남도 심사위)의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각 시·군의 대형 투자사업들이 타당성은 있는지 또는 불필요한 사업추진에 아닌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의해 해당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할 전남도 심사위가

전남도 공무원·교수 14명

시·군 신규사업 심사위 운영

작년·올 심사 140건 중

'부적정' 결론은 단 1건

오래려 면죄부만 주고 있다는 것이다.

7월 전남도에 따르면 공무원·교수 등 14명으로 구성된 전남도 심사위는 매년 수차례에 걸쳐 각 시·군의 신규투자사업(총 사업비 40억원~100억원 미만)과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20억원 이상), 공원·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5억~30억 미만) 등을 투자심사하고 있다.

전남도 심사위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의 심사체크리스트를 기준 삼아 각 시군에서 제출한 대형 투자사업의 성격,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타당성 조사사항 및 조사기관의 적정성, 지역경제 파급 효과, 지역 내 동일 시설 설치 여부, 사업규모 적정 수준, 시급성, 총사업비 및 운영비용 산정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전남도 심사위는 지난해(95건)와 올해 5월 말 현재(45건) 모두 140건을 심사, ▲적정 65건 ▲조건부 57건 ▲재검토 17건 ▲부적정 1건 등으로 결론냈다. 이 같이 전남도 심사위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사업 10건

중 8.7건은 무리없이 추진하게 됐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남도 심사위의 승인을 받은 각 시·군의 투자사업 대다수가 심사 당시와는 달리 사업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완도 장보고기념관과 문화예술의 전당은 지난해 각각 14억원과 19억원의 적자를 냈고, 영광 예술의전당은 4억원의 손해를 봤다. 해남 공룡화석지와 강진 고려청자박물관은 입장수익이 감소하면서 9억원과 5억원 가량의 적자를 냈다.

전남도 심사위가 타당성, 적정성, 시급성 등에 대한 심사는 허술하게 하는 반면 지역경제 파급효과만을 높게 평가해 결과적으로 사업을 엄격하게 심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우선 전남도 심사위

위원들은 대개 서류심사 일주일 전 전남도 주무 부서로부터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검토하는 등 시간이 촉박하다. 또 각 시·군과 전남도, 심사위원 간 이해관계가 공정한 심사를 방해하는 등 객관적인 심사를 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현장실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전남도 심사위원들은 사안에 따라 현장실사를 해야 하는데도, 전남도 또는 각 시·군 담당 공무원의 현장 실사 보고자료만 보고 서면심사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사후관리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부실 심사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매뉴얼 지침상 사후관리는 각 시·군 자체 또는 교차 평가가

하도록 돼 있다. '봐주기 평가'가 이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사실상 사후관리는 하지 않아도 되니 전남도 투자심사만 잘 받으면 된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것이다.

A심사위원은 "(전남도 심사위는) 여러 단계를 거쳐 올라온 사업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위원회다. (솔직히) 이젠 좀 아니다 싶은 사업도 있지만 심사를 다시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며 "반대로 이 투자사업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심사위원 간 주관적 판단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를 감안하면)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조선 구설수 단속 나선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이상호 원내대표와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조선의원들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회의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조선의원들의 의정 활동 도중 나온 일부 발언에 대해 비판이 거세지자 내부단속 차원에서 소집됐다. /연합뉴스

"권력에 줄 서는 정치 바꾸겠다"

이정현 의원 새누리당 대표 경선 출마 선언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 중 유일하게 새누리당 소속인 이정현 의원이 '8·9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가 당 대표에 출마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겠다"며 "이것은 저를 연이어 두 번이나 국회의원으로 선택해 주신 순천시민들의 엄중한 명령이자, 제가 순천시민들께 했던 약속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에 좌절하고 분노한 국민의 심판이었던 4·13 총선으로 20대 국회가 구성됐지만 우리 정치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혁신·쇄신·개혁, 이러한 화려한 말 잔치뿐 다시 특권, 기득권에만 집착하고 있지, 국민과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4·13 총선이 끝나자마자 배낭 하나 메고 전국을 돌며 민생 현장을 둘러봤다. 국민이 무엇에 분노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지 생생히 보고 듣고 가슴으로 느꼈다"며 "결론은 제가 당 대표가 돼서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당 대표가 되면 국민의 눈으로 정치에 특권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기득권을 철저히 때려부수고, 서번트(servant) 리더십으로 국민을, 민생을 찾아가는 당으로 만들기 위해 당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민생 문제만큼 양당의 시각으로 접근하고 여당으로서 책임지겠다"면서 "대한민국 정치의



새누리당 이정현(순천)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9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질적인 권력에 줄 서는 수직적 정치 시스템을 수평적 구조로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올해 태어난 아기가 성년이 되는 19년 동안 이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정당, 그래서 (이 아기가 자라) 2035년 첫 선거에서 선택받는 정당 이 되도록 장기 비전과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더민주 5·18 특별법 개정안 당론 발의 안하나 못하나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애곡 및 비방 행위를 처벌하고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의 당론 발의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논쟁을 받고 있다.

7일 더민주 이개호 의원실에 따르면 5·18 특별법 개정안의 발의 요건을 이미 2주 전에 충족시켰지만 지도부의 당론 발의에 대한 입장 정리가 이뤄지지 않아 아직까지 국회에 법안을 접수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상호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5·18 특별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작 의원총회 등을 통한 당론 발의에는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이미 지난달에 현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 5·18 특별법 개정안의 당론 발의에 나섰지만 야권의 맹형 격인 더민주가 내부적으로 법안이 마련됐음에도 이를 외면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더민주의 5·18 특별법 개정안의 당론 발의는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서 야권의 공조를 이끄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더민주 이개호 의원은 "이미 이상호 원내대표에 5·18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당론 발의를 요구했고 '공감한다'는 입장을 들었다"며 "하지만 현안이 속출하면서 특별법 개정안의 당론 발의가 미뤄지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더민주가 국민의 당에 5·18 특별법 개정안의 당론 발의를 선점하면서 내부 동력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원내지도부 미온적 태도
요건 갖추기도 제출 못해

한편으로는 더민주 원내지도부가 5·18 민주화운동 애곡에 대해 분노하는 호남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말로는 광주 정신과 호남 민심을 얘기하면서도 5·18 특별법 개정안의 당론 발의에 미온적인 더민주의 모습이 실망스럽다"며 "아직도 더민주가 호남 민심을 담은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번엔 기본소득... 김종인 좌우 넘나든 경제 광폭행보 기본소득네트워크대회 축사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이 이번에는 기본소득을 화두로 들고 나오는 등 좌우를 넘나드는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정부가 일정 수준의 생계비를 주는 기본소득 개념은 전통적인 진보진영 어젠다로 꼽혀왔다. 때문에 김

대표가 기본소득에 목소리를 높이자 당 안팎에서는 의외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서강대에서 열린 '제16차 기본소득지구 네트워크 대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서 기본소득 얘기를 하면 '저 사

람 정신나가지 않았느냐'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지만, 미래를 위해 생각해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세계적으로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기본소득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저출산·고령화 탓에 대전환의 시점에 서게 됐다. 포용

적 성장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하고, 기본소득 문제도 제대로 다뤄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김 대표의 행보는 경제민주화 문제에서는 좌우의 틀에 갇히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

"건전 장례문화 발전을 위한 가격 공개!"

8년전 가격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식비	구분		수량		단가		구분		수량		단가	
	구분	수량	단가	구분	수량	단가	구분	수량	단가	구분	수량	단가
음식비	밥	60인분	60,000	고사리나물	3k	45,000	동대+애호박전	4k	96,000			
	육계장	60인분	114,000	표고버섯나물	3k	54,000	초고추장(직접만들)	1병	15,000			
	쇠고기무국	60인분	114,000	파리고추멸치조림	3k	78,000	양념새우젓(국산)	1k	15,000			
	북어무채국	60인분	108,000	명태코다리조림	4k	88,000	인절미	6k(3되)	54,000			
	된장국(국산검은콩)	60인분	96,000	오이도라지무침	4k	84,000	기피인절미	6k(3되)	57,000			
	배추김치(국산)	5k	57,500	홍어회무침	4k	104,000	골떡/절편	6k(3되)	45,000			
	도라지나물	3k	45,000	홍어사시미	4k	120,000						
	새송이나물	3k	54,000	돼지삼겹(수입)씻기	5k	105,000						
	취나물(계절)	3k	54,000	돼지삼겹(국내)씻기	5k	190,000						
장례용품비	구분	수량	단가	구분	수량	단가	구분	수량	단가			
	0.6도동관	1개	200,000	저출몰및음식물처리비용	2회	100,000	항/원장(세트)	1개	5,000			
	수리(화장)	1벌	200,000	수세복	1벌	30,000	매베	1회	150,000			
	초립비	1회	100,000	액자리본(고급)	1개	5,000	입관용품	세트	150,000			
	안치실	1회	100,000	항위패	1개	20,000	양초(대)	1개	10,000			
	염습비	1회	300,000	방위패	세트	80,000	여성복	1벌	18,000			
	염습일대료	상조	250,000	부위록	1권	15,000	넥타이	1개	3,000			

주류·음료 소주 1,500 / 맥주 1,600 / 콜라, 사이더 700

맛과 품질과 중량을 반드시 비교해 주십시오

- 전 빈소 전자저울 비치로 음식 중량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물품 판매 즉시 전산전표 발행으로 실시간 장례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가족과 슬픔을 함께하는
그린장례식장
www.greenfuneral.co.kr
Tel. 062) 250-4455
광주광역시 동문대로 255 (문흥동 876-17)

그린은, 유가족과 슬픔을 함께하며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고귀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그린에서 상을 치루시면, 전국 어디서나 문상객이 찾아오기 편리하며, 쾌적한 접객실, 맛있는 음식, 품격있는 행사와 의전으로 고인에 대한 예와 품격을 높이고, 장례비용은 대폭 절감하여 상주님께 큰 이익이 됩니다.

그린장례문화원 250-4455

